

2007 서울국제도서전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 만나다

‘2007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6월1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외 파키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28개국의 출판사, 서점, 저작권 에이전시 500여사가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출판문화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내년 2008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를 앞두고 있어 도서전에 대한 국내외 관람객들의 기대가 높았다. 행사 첫날인 6월 1일, 태평양홀 입구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맹호 출협회장과 홍우동 인협회장을 비롯해 김재윤·전병헌 의원, 김종민 문화부장관, 한명숙 전국무총리, 사회학자 엘빈토플러 등 50여 유명 인사들이 자리했다. 행사는 인사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 도서전 소개,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테이프커팅식. 인협 홍우동 회장을 비롯, 한명숙 전총리, 김종민 문화부장관, 엘빈토플러 등이 참석했다.

다채로운 특별 전시로 즐거움 더해

이번 전시회는 ‘세계, 책으로 통하다’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세상과 이를 한데 엮어주는 도구로써 ‘책’에 주목했다.

우리 시대 유명 인사 <나의 삶, 나의 책>라는 코너에서는 우리 시대 유명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과 함께 소개됐다.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그 인물과 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였다.

그림, 문학을 그리다라는 코너에서는 한국 문학작품들을 회화로 표현했다. 문자와 이미지라는 차별화된 영역을 책이라는 공통 주제로 표현한 점이 독특했다. 두 개의 세계를 책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거실을 서재로 코너에서는 거실이 서재로 바꾼 예를 보여주고, 거실을 서재로 바꿔주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출협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책읽기 사업으로, 거실에 TV가 아닌 책이 머무는 곳으로 바뀌, 자연스럽게 독서를 친근하게 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지도전문출판사 성지문화사 2 번역문학전문출판사 열린책들 3 사상고전문출판사 한길사 4 큰호응을 얻은 인협·청주시의 고인쇄체험

신인 북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코너에서는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느껴볼 수 있었다. 신진 작가들의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한 책표지 디자인은 그 자체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주목받고 있는 북아트 지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어린이책이었다면, 올해의 화두는 '북아트'였다. 지난해에 주로 초보자들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마련되었던 부스들이, 올해는 북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저마다의 독특한 시선으로 재창조된 아트북들이 흥미로웠으며, 예술책장정공방 렉토베르소에서는 2세대들의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직지 금속 활자판 인쇄 체험 인기 국제도서전에서도 유독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는데, 바로 '직지홍보관'이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홍보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소개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직접 인쇄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미디어와 홍보도우미를 통한 '직지' 소개와 함께, 직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직접 인쇄해 볼 수 있는 '고인쇄체험' 순서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출협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열려

부대행사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출협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우동 인협회장을 비롯 김재윤 의원, 김종민 문광부장관, 박맹호 출협회장, 안나 마리아 국제출판협회장 등 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동영상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이어 김종민 장관 축사, 공로패,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